독창적 세계 이룬 그림책 작가들

확대경 보듯 세밀한 생활의 그림

《우리 순이 어디 가니》의 이태수씨

세밀화를 그리는 이태수씨의 작업대 위에는 조금 특이한 물건이 있다. 꽤 크고 좋아보이는 확대경이 그것이다. 한쪽에는 동 · 식물 등 자료사진을 모아둔 미니앨범이 스무개가 넘는다.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보려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못 보는 작은 것을 볼 줄 알거든요."

아이들 그림에는 구석구석에 자신들만 아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빽빽해 보이는 세밀화를 그림책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도 그런 이유에서 나왔다. 이번에 나온 계절그림책 《우리 순이 어디 가니》(보리)의 보리밭에서 무당벌레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먹고 삽니다. 봄철 보리에는 진디가 끼죠."

이유까지 이해시키려는 것은 억지지만 사실을 그대로 보고 느끼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집, 그곳에 놓인 물건, 다니는 동물, 풀, 그리고 꽃들,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담기 위해서 취재만 3년 걸렸다. 봄이 짧아서였다. 사실감을 높이기 위한 그림재료의 선택도 남다르다. 봄의 나른한 화사함을 위해서 파스텔을, 겨울의 황량하지만 깨끗한 느낌은 연필만으로 표현했고(《우리끼리 가자》), 여름의 시원함은 수채로 그렸다(《심심해서 그랬어》).

그림책 작가의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얼마전 구성한 기획집단 '도토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다. 또,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어서 이상적이다. 이들은 되도록 다른 곳과 경쟁하지 않고, 자연과 전통을 일관된 주제로 삼아 어린이출판의 빈 곳을 찾아간다.

"어릴 때 경험을 밑천 삼아 그려왔는데, 이제 더이상 취재하지 않고 그리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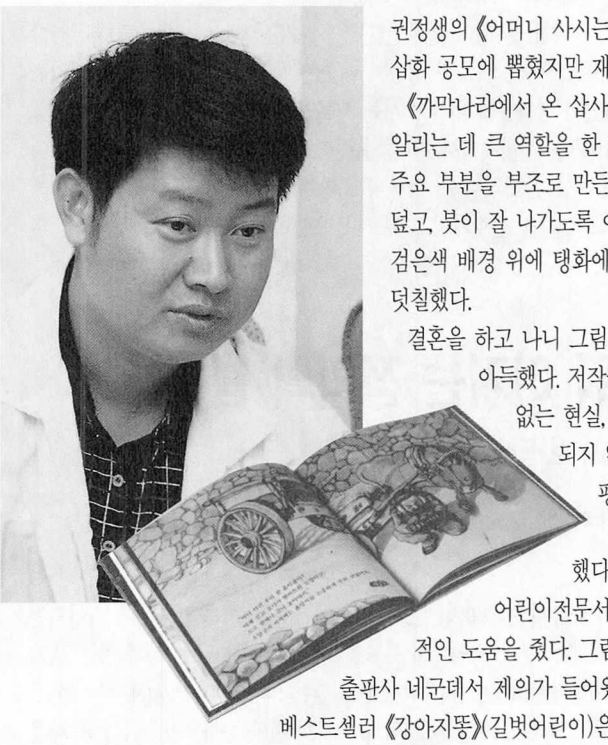
생활이 곧 그림이 되고, 이야기가 되게 하려고 시골에 터잡을 생각이다. 그동안 기본적인 형식을 다지느라 세밀화의 여러 형식을 많이 참았는데, 그것도 툭 터놓으려고 한다.

어린이에게 늘 새롭게 배운다

《강아지똥》의 정승각씨

바로 며칠전, 정승각씨(38)는 일본에 그림원고를 넘겼다. 후쿠잉칸쇼텐에서 펴내는 세계민담집 가운데 한국도깨비민담집 그림이다. 원래 5개월을 약속했지만 작업기간이 8개월로 길어졌다. 지역 · 시대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 도깨비 형상에 대한 논란, 흑백 1도라는 표현의 한계 등이 부담스러웠다. 어쨌든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작가'로 인정받은 셈이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위해 시청각자료를 만든 것이 어린이책과의 첫 인연. 그 후 철거촌 · 달동네를 돌며 골목마다 벽화도 그리고, 놀이마당을 진행했다. 어린이 곁에 있다가 '어린이도서연구회'와 인연을 맺었고 책그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 졸업 때,



권정생의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에 넣을 삽화 공모에 뽑혔지만 재판을 찍지 못해 묻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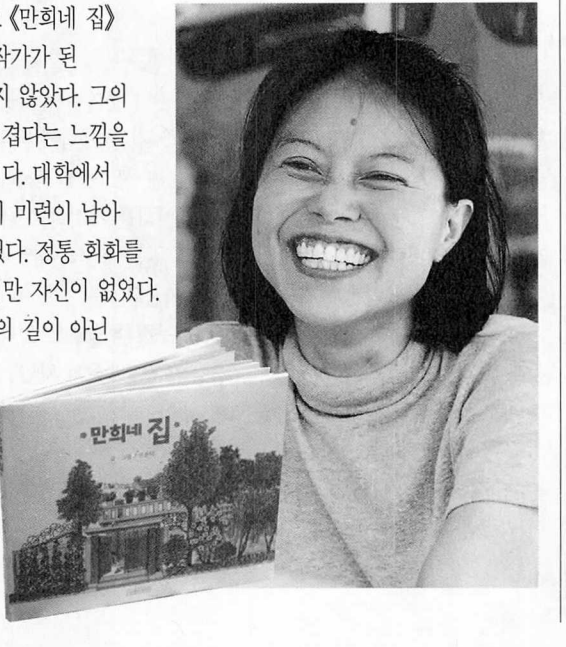
《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통나무)는 그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작품이다. 주인공 등 주요 부분을 부조로 만든 그림 위에 모시천을 덮고, 붓이 잘 나가도록 아교로 틈을 메꿨다. 검은색 배경 위에 탱화에 쓰는 오색과 금분을 덧칠했다.

결혼을 하고 나니 그림책 작가로 살아갈 일이 아득했다. 저작권도 없고, 표준계약서도 없는 현실, 하다못해 의료보험도 되지 않으니 내 길을 가든지, 평생 전집류의 삽화나 그리든지 결정해야 했다. 그때 막 문을 연 어린이전문서점 '초방'은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그림을 서점에 전시하자 출판사 네군데서 제의가 들어왔다.

베스트셀러 《강아지똥》(길벗어린이)은 글을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녔다. 출판사를 정하고 강아지똥만 보고 살았다. 내용을 씹어 딱 맞는 형식을 찾으려는 것이었는데, 동글동글한 모양이 어느날 살아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꽤 알려진 작가지만 여전히 힘들다. 매번 늦어지는 작업에 화료를 미리 받는 것이 꼭 빚지는 것 같아 97년 충주로 내려갔다. 생활비가 적게 들고, 공간도 넓게 쓸 수 있어서다.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새로 난다. 그래서 그는 육아공동체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그들을 늘 새롭게 배우고 있다.

정겨움이 깃든 삶을 담아

《만희네 집》의 권윤덕씨



학습지 · 전집물을 거치지 않고 《만희네 집》(길벗어린이) 한권으로 그림책 작가가 된 권윤덕씨(39)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의 책을 보고 어딘지 어설프지만 정겹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지만 미술에 미련이 남아 대학원을 광고디자인과로 진학했다. 정통 회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졸업하니, 그것도 자신의 길이 아닌 것 같았다. 안양에서 미술운동을 시작했고, 한동안 벽화나 걸개그림을 그렸다.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정립되고 우리 그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의 성과였다. 정치풍자

화를 그리리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해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읽힐 책을 찾다가 뜻밖에 그림책에 눈떴다.

《만희네 집》을 그리던 때는 시어머니가 척추수술하고 누워 있던 때였다. 어머니 대신 살림을 맡아 된장을 푸러 장독대를 오르내리면서 집을 그려보고 싶었다. 오래된 물건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집, 손으로 일일이 만든 옛날 창살을 보니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삶을 꾸려나가고 변화하는 시대의 흔적이 남는 공간이었다.

장독대에서, 방 한구석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 물건들 모두 전통이었고, 그때부터 스케치를 시작했다. 꼬박 2년이 걸렸다. 책을 마치면서 구상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 사연이 깃든 옷으로 가족과 이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책을 만드는 데 다시 2년이 걸렸다.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보만 있는 책도 아닌 새로운 형식이 《엄마, 난 이 옷이 좋아요》(재미마주)로 완성됐다.

지난해 중국에서 1년을 공부했다. 전재산이랄 수 있는 전세돈을 빼서 쓰고 돌아왔지만 불안함은 없다. 오히려 자신이 생긴다. 중국으로 떠날 때는 많이들 걱정했다. 전공자가 아닌 사람의 장점이 현란한 중국 전통화 공부로 훼손되지 않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배운 만큼 버릴 수 있겠다는 여유가 생겼다.

이제 그림책의 방향을 바꿔볼 생각이다. 중국에 있는 동안 뭘 그릴까 고민했는데, 만희네 집에 등장했던 책이 가득한 아빠방에서 힌트를 얻었다. 바로 서가에 살고 있는 책벌레 얘기다. 다양한 성격의 책벌레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만들어보고 싶다. 지금은 춤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한달째 재즈댄스를 배우는 중이다.

수묵담채화 같은 한국적 인물 창조

《내짝꿍 최영대》의 정순희씨

그림책 작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정순희씨(34)를 "외국 영향 덜 받고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본격 데뷔작이자 95년 황금도깨비상을 수상한 《바람 부는 날》(비룡소) 역시 여백이 많고, 스케치한 선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수묵담채화의 느낌이 살아 있다.

"운이 좋았어요. 응모는 했지만 수상은 기대 안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꼴찌상인 입선부문만 훑어봤는데 이름이 없었다. 우수상으로 뽑혔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만큼 낯선 형식이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극적이고 단순한 그림만을 좋아한다고 믿지만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길드는 것뿐이죠."

이야기든 그림이든 우리 주변에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가장 우리나라 어린이 얼굴과 가깝다는 평을 들은 《내짝꿍 최영대》(재미마주)는 글을 절반쯤 읽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얼른 수락했다. 바로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 겪었음직한 일이라 호감이 갔다.

"'영대'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세가지를 정했습니다. 한국적일 것, 우리 재료를 사용할 것, 캐릭터 형상화에 주력할 것."

특히 캐릭터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 시간만 나면 초등학교 교정에 앉아 스케치하고 사진도 찍었다. 배경도 많이 생략해 등장인물이 돋보이도록 신경썼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독촉하지 않고, 그림이 좀 남달라도 간섭하지 않은 출판사의 태도가 큰 힘이 됐다. 그림책 작가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고마웠다.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그림책 작가의 지위는 낮습니다. 출판계만 문제는 아니죠. 조금 어렵더라도 자기 세계를 고집하는 '작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파격적 형식에 독특한 캐릭터

《마고할미》의 조선경씨

조선경씨(39)의 첫 그림책은 《마고할미》(보림)다. 페이지를 위, 아래로 펼칠 수 있게 만든 이 책은 파격적인 형식과 독특한 캐릭터로 눈길을 끌었다.

"진짜 거인을 그리려면 종이가 커야죠. 다른 걸 작게 그려 상대적으로 커보이게 하는 건 가짜입니다."

출판사를 설득해 무선제본 대신 스프링제본으로 책을 만들었다. 양쪽 전면을 펼치면 그림의 총 길이가 2m에 달하는 이 책은 제작비 때문에 가격이 비쌌지만 꽤 팔렸다.

그가 책과 인연을 맺은 것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뉴스플러스》, 《한겨레 21》 등 시사주간지 창간호 표지작업을 통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감정은 각별하다.

"바로 내 아이가 읽을 책이니 사명감이 커집니다. 되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94년부터 지금까지 작업한 어린이책은 불과 5권, 계약은 반드시 인세로 한다. '내 작품'에 대해 두고두고 책임지기 위해서다. 얼마전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놀랐다.

"편집전문가나 아트 디렉터 같은 전문가 없이 국정교과서팀의 틀을 고집합니다. 시각개념에 대한 코드가 전혀 없어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대충 다해봤다고 느끼는 요즘은 캐릭터에 빠져있다. 그림책은 일회적이지만 캐릭터는 생명력이 길기 때문이다. 얼마전 창간한 어린이 잡지 《생각쟁이》의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는데, 특히 도깨비 같은 전통적인 캐릭터를 발견하고 보물창고를 발견한 듯 기뻤다. 수많은 문헌자료와 구비문학에 몇백년 동안 다듬은 형태와 조형감각, 이론적 배경이 설명돼 있으니 이만큼 풍성한 소재도 없다.

"캐릭터뿐 아니라 동영상을 출판과 병행한다면 그 가능성은 무궁합니다."

그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요즘은 전래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이현주